

'별 헤는 밤' 광양전어축제 열린다

내달 12-14일 망덕포구 일원
맨손 전어잡기·야경 등 풍성

광양시가 올가을 밤하늘을 전어와 함께한 축제의 장으로 만든다.

10일 광양시에 따르면 다음달 12-14일 사흘간 진행되는 망덕포구 일원에서 '별 헤는 밤' 전어가 전하는 바다의 향연'을 주제로 제24회 광양전어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됐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맨손 전어잡기 체험,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 전국 초등학생 대상 백일장·사생대회가 있다.

또 배알도 섬정원과 별헤는 다리의 야간 경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축제 첫째 날인 12일에는 혼성 3인조 포크그룹



지난해 광양시 진월면 망덕포구에서 열린 '제23회 광양전어축제'에서 관광객들이 맨손 전어잡기 체험을 즐기고 숯불에 구운 전어를 맛보고 있다. <광양시 제공>



기가수 김양·박성현의 축하공연으로 축제가 폐막한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해상에서 직접 전어를 잡는 '해상 전어잡기 시연'이 진행돼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정병욱 가옥 앞에서는 토·일요일 양일간 하루 3회씩 '하늘과 바람과 별과詩'가 있는 음악 버스킹이 열려 라이브 연주와 시 낭독이 어우러진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해 전어 한 접시를 맛볼 수 있는 '진월 관광 스탬프 투어'를 통해 볼거리, 즐길 거리, 맛볼 거리 모두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체험을 방문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행사장인 망덕포구는 광양 진월 IC에서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국도 2호선을 이용하면 접근이 용이하다.

축제 기간 동안 망덕 먹거리타운 거리 일대는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되며 차량을 이용하는 방문객은 전어조형물이 있는 행사장 입구 인근의 임시 주차장과 진월초등학교 뒤편 공용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이같은 광양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 "전어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그늘막 설치 등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가족, 친구, 연인 모두가 섬진강의 풍광과 전어의 맛을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양홍필 기자

'고흥물' 개설 4년만 역대 최대 매출

관외 매출 비중 96%...인지도 ↑

신규 회원 수 전년비 662% 증가

농민 생산·행정 판매 모델 정착

고흥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물'이 개설 4년 만에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며 지역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에 탄력을 받고 있다.

10일 고흥군에 따르면 고흥물은 2021년 9월 개설 이후 2025년 6월까지 누적 매출 90억원을 기록,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전체 매출의 96%가 관외에서 발생해 고흥 농수특산물의 경쟁력과 인지도를 입증했다. 고흥군은 생산자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판매는 행정이 맡는 '책임 판매' 모델을 정착시켰다고

평가했다.

고흥물은 전국 지자체 중 드물게 직영으로 운영되며, 생산자 관리부터 상품 기획·홍보·마케팅·고객 상담까지 군이 직접 주도한다. 이 같은 운영 체계는 쇼핑몰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례로 꼽힌다.

2025년 상반기에는 ▲발렌타인 커피전 ▲식목일 묘목 할인전 ▲세계 환경의 날 기획전 ▲선데이 산데이 쌀데이 ▲양과 얼리버드 할인전 ▲명품 매실전 등 30여 회의 기획전이 열렸다. 상품 특성과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이벤트형 판매 전략이 구매를 효과적으로 유도했다.

품목별로는 고흥쌀이 4천997건, 약 2억5천만 원으로 최고 매출을 기록했고 거금도 양파 2만5

천671건(2억2천만 원), 고흥 복숭아 1만3천910건(1억3천만 원)이 뒤를 이었다.

군은 W쇼핑, GS홈쇼핑, 신세계TV쇼핑, 11번가 등 21개 외부 온라인몰과 연계해 유통 채널을 다변화하고, 이를 통해 신규 고객 확보와 재구매율 상승을 이끌었다.

고흥물 회원 수는 4만5천823명으로, 올해 신규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662% 증가했다. 기획전, SNS 홍보, 할인쿠폰 제공 등 디지털 마케팅과 수도권·전국 행사 참여를 통한 현장 홍보가 주요했다.

고흥물 관계자는 "고흥물은 안정적인 유통망과 생산자 중심의 판로 확대를 실현하는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유통·판매·홍보를 아우르는 통합 기능을 강화해 농어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진 기자

장흥군 귀농·귀촌인 농기계 활용 교육 '호응'



장흥군은 10일 '귀농·귀촌인과 신규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기계 활용 역량 강화 교육을 7

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초기 정착 단계 농업인의 농업기

계 사용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운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소형 농기계 사용 및 실습 ▲농업기계·농작업 안전 365 교육 ▲중형 농업기계 사용 및 실습 등 3회 과정으로 이론과 실습을 병행해 진행됐다.

30여명의 참가자는 농업기계의 기본 구조 이해와 실습을 통해 운용 방법을 익히고, 작업 전 점검 요령과 기계 관리법 등 안전한 사용법을 배웠다. <사진>

특히 지난 4일 교육에서는 AI 기반 자율주행 농업기계 기술 발전 현황을 소개했다. 국내·외에서 상용화된 자율주행 트랙터와 콤팩트의 주요 기능과 국내 기술 보급 현황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또한 농업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한 기종과 이용 방법 안내도 함께 이뤄져 교육 참가자들이 향후 기계를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장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신규 농업인이 농업기계 이해도를 높이고 자율주행 등 첨단 농업기술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중심 교육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장흥=노형록 기자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총 4세대...연 소득 9천만원 ↓

여수시는 10일 "오는 14일까지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세대는 총 4세대로, 출산 예정이거나 미취학 자녀를 양육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 합산 연 소득이 9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입주자는 유자격자 심사를 거쳐 공개 추첨 방식으로 최종 선정되며 추첨 일정 및 장소는 신청 접수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대상 주택은 문수동에 위치한 2층 단독주택 2

동으로, 각 동의 1층과 2층에 각각 한 가구씩 총 4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사진>

시는 '여수형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 불안을 겪는 신혼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 속에서 새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다양한 주거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여수형 청년임대



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총 200호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여수=김진선 기자

화순어울림센터 작은도서관 오늘 개관

'책이랑 어울림'...어린이·다문화 공간

화순군은 10일 "11일 화순어울림센터 내에 어린이와 다문화 가족에 특화된 작은도서관 '책이랑 어울림'(사진)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책이랑 어울림은 2021년 문화시설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총 3억3천만 원(국비 1억1천200만 원, 군비 2억1천800만 원)을 투입해 조성했으며 126㎡ 규모로 꾸며졌다.

내부에는 최신한 매대와 가족 단위 이용 공간이 마련돼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머물며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현재 약 1천300권의 도서가 비치돼 있으며 이중 600권은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담은 다문화 도서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문화 이해를 도울 전망이다.



운영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해 이용할 수 있다.

강삼영 문화예술과장은 "책이랑 어울림은 책을 매개로 다양한 가족이 소통하고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독서 접근성과 문화 다양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이병철 기자

'곡성물 보양대전' 최대 30% 할인

19일까지 민물장어·참송이 등

곡성군은 오는 1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곡성물'에서 여름철 보양식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

10일 곡성군에 따르면 '마지막 기력충전! 곡성물 보양대전'은 여름철 건강 관리를 위해 보양 식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 소비자가 실속있게 여름 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번 기획전은 30%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주요 판매 품목은 ▲썬새비(곡성) '민물장어' ▲옥과농원 '참송이버섯' ▲마루푸드 '심정골 추어탕' ▲딱정네영농조합법인 '쌀조청' ▲강변축산 '자미유정란' ▲마커20 '건강 간편식 주스' 등이다.

소비자 참여형 리뷰 이벤트도 함께할 계획이다. 오는 31일까지 상품 구매 후 리뷰를 작성한 고객에게 할인쿠폰(골 1천원·사진 2천원)을 지급한다.

할인쿠폰은 매주 금요일 발급이 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곡성=김영필 기자



담양군 '작은도서관 도서 나눔 행사'

기증도서 2천권 배분

담양군은 10일 "전남도교육청 담양도서관으로부터 기증받은 약 2천권의 도서를 관내 작은도서관에 배분하는 '작은도서관 도서 나눔 행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달 24일부터 진행된 이번 행사는 도서 수급이 부족한 작은도서관에 희망 분야의 도서를 지원해 지역 독서 인프라를 확충하고 독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담양군은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각 도서관의 희망 장르를 파악한 후 약 100권씩 배분했다. 남은 도서는 양매재와 청소년문화의집 등 주요 문

화시설에 비치해 지역 독서 행사에 활용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에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담회도 함께 열어 운영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군은 운영자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연중 독서문화 확산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도서 나눔은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독서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 가치를 높이는 뜻 깊은 사업"이라며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독서와 나눔을 통해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규 기자